

상록탑

# 내가 사랑했던 모든 영화들에게

한국계 미국인 작가 제니 한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짝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몰래 쓴 연애편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해지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로, 주인공인 '라라 진'으로 분한 배우가 동양계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신모은  
사진미디어부 부장

동양계 배우가 '라라 진'을 연기하기까지 작가 제니 한의 이유 있는 고집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일찍이 "동양계 여성 배우에게 주인공 자리를 주는 제작사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양한 제작사로부터 소설의 영화화 제의를 받았지만, 단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라라 진' 역할에 백인 배우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할리우드는 아시안계의 화이트 워싱(white-washing) 논란으로 뜨거웠다. 화이트 워싱이란 역할의 배경과 인종은 무시한 채 무조건 백인이 해당 역할로 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화 '마션'(2015) 제작진이 한국계 과학자 '민디 박' 역할을 백인 배우가 분하게 해 비판 받은 사건을 기점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됐다.

화이트 워싱 논란의 골자는 사실상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성별·문화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미디어 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드라마, 영화 등 방송 영상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끼치는 유의미한 영향에 대한 담론은 진부한 주제라고 느껴질만큼 익숙하다. 그러나 미디어는 대개 사회 현상을 따라갈 뿐 이를 앞서지 않는다. 가령 인종문제의 경우, 미국 내 거주 중인 소수 인종이 방송 영상 콘텐츠에서 주인공을 맡는 경우는 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에 한참을 밑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모든 출연진이 한국계 미국인 배우로 구성된 영화 '서치'(2018)의 북미 흥행은 한국인으로서 고마운 성과다. 영화 '서치'의 주인공으로 분한 배우 존 조가 영화 '마션'의 화이트 워싱 논란 당시 누리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행동한 해시태그 운동 '#존조를 출연시켜라(#StarringJohnCho)'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존 조는 이번 영화

의 흥행으로 소수 인종을 배제해야 '잘 팔린다는' 자본주의 논리를 종식시켰다.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이 명백한 억지 논리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는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좋은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함은 일종의 '책임 이행'이다. 또한,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와 '서치'는 북미의 미디어 종사자들이 대중에게 전하는 '인종 다양성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겠다.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를 서비스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테드 사라노스가 "할리우드의 캐스팅이 아닌 현실적인 다양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소수자, 유색인종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중문화에 녹여려는 움직임이 스크린과 모니터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나야만 한다는 뜻이다.

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업계는 어떠할까. 국내 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서왔던 자리는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 소수자를 향한 시선이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서 정작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지우고(wash)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때이다.

사설

# 영어강의 개선 위해 대학평가 기준 바뀌어야

필수적으로 영어강의를 18학점 이상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학습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영어강의가 개설되지 않는 전공 학생들은 전반적인 학사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영어 구사력 및 학습 지도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위로 영어강의를 개설해야 하니 당혹스럽기는 교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영어강의 필수 이수 제도를 고집하는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의견 역시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어강의는 학교 당국을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언론사 대학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실시하는 대학 평가 항목에는 '국제화' 항목이 존재한다. 크고 작은 비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006년부터 '국제화' 항목에 영어강의 비율 지표를 삽입하며 대학 전반에 영어강의 확대 열풍이 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일차적인 문제의 시발점은 '국제화'라는 모호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개념을 대학 평가 기준에 삽입한 언론사다. '국제화'는 용어에 대한 통일된 해석도 없을뿐더러 애초에 평가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 이를 수치화해 평가하려 하니 무작정 영어강의 수를 늘리는 학교에게 더

나은 평가를 내리고 순위를 올려주는 지금의 현상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정작 영어강의가 학생과 교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함에도 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론사 대학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위 매기기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다. 본교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영어강의 필수 이수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대학평가 순위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외 이미지가 하락하고 학내 구성원의 반발은 커지며 비판은 또 다시 학교 당국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니, 학교 입장에서는 영어강의 필수 이수 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대학평가 순위에 목매는 사회 분위기와 그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대학이 전반이 합심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어강의를 지속시키고 있는 꼴이다.

영어강의는 본교만이 밭 벗고 나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 사회 구성원, 대학이 전반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지 않는 한 영어강의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언론사는 '국제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 대학평가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은 애초에 대학평가 순위에 집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영어강의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다.

학생 칼럼

#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주세요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켰는데 유리잔에 빨대가 꽂혀 나왔다. 요즘 빨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한 사람당 하루 최소 한 개의 빨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버려지는 빨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하루 동안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의 양을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백지현  
사학·18

플라스틱 빨대는 얇고 작아서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일회용품 중 하나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용 억제 대상 일회용품'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가격도 저렴해 쉽게 사용하고 버려진다. 빨대 하나를 소비하는 데는 짧게는 몇 분, 길어도 하루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은 빨대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500년이라는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 순간이다.

게다가 빨대는 분해가 채 되기 전에 부서지고 부서져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구 곳곳에 잔류하게 된다. 물고기나 새를 비롯한 생물들은 알록달록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다. 실제로 플라스틱 섭취로 죽어가는 바닷새는 연간 100만 마리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비단 동물들에게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어패류, 생수 등을 통해 우리 또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환경문제 심각성 인지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에 따르면 경남 진해-거제 지역 양식장 인근 해역의 굴·담치·게·지렁이 139개체 중 97%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4대강 수계 24개 정수장 중 12곳에서 소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만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고 난 후 빨대의 존재가 더욱 불편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대에 너무 익숙해진 나를 위해 최근에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대화용 빨대와 빨대 세척 솔을 구매했다.

정부도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에는 아예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이다.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덕분에 일회용 컵 사용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플라스틱 빨대는 아직도 매장 내외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관한 시민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종이 빨대나 드링크 리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때때로 환경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빨대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론광장

# 예쁜 여자보다 멋진 사람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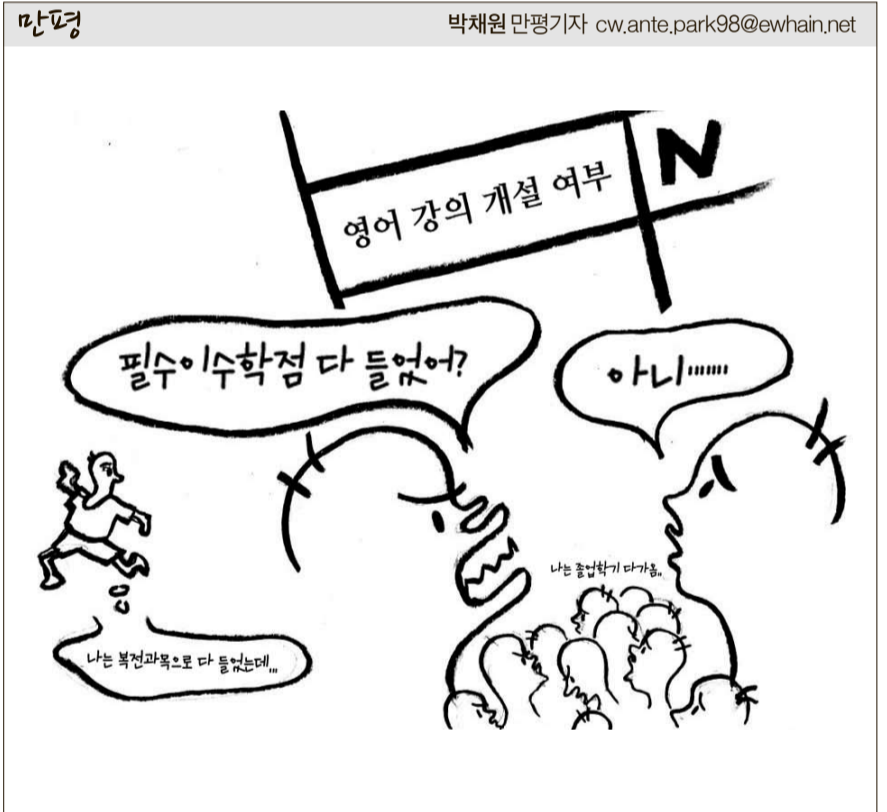
“그 여자에는 푹푹한데 얼굴도 예뻐” 사춘기 시절부터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다. 꿈꿔오던 나의 미래엔 항상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우리 사회는 정말 그럴지도. 나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다. 매일 초엔 새로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즐거워했다. 가뜰이나 큰 키가 더 자랄까 운동으로 줄넘기는 하지 않았으나, 얼굴이 작아지는 마사지를 따라 하고, 예쁘게 웃는 법을 연습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능력이 끝나고는 귀를 뚫었다. 태생부터 남들보다 두꺼운 내 귓볼은 귀를 뚫은 지 반년이 지나도록 고통을 뻔어냈고, 그래서 찾아낸 것은 '귀찌'라는 타협점. 더는 고통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되면서, 귀에 반짝거리는 것을

달고 다닐 수 있었다. 고통이 나오는 것보다는 귀찌가 귀를 꼬집는 편이 나왔다. 그때 나에게 '귀걸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는 없었다. 무엇을 위해 예뻐져야 하는가? 항상 대답은 같았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라는 말은 나를 정말 화나게 했다.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작고 마른 몸, 큰 눈과 오뎅한 코를 갖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넌 예쁜데 왜 남자한테 인기가 없을까?"라는 말은 칭찬이 아닌 위로였다. 2015년에는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나,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 뽑으라"라는 모 대학 이사장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됐다. 이 말은 여자의 화장이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회는 여자에게 화장은 예의이

고 무기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치장하는데 바쁜 여자'들을 비판한다. 누굴 만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아름다워지길 희망했고, 아름다워지고자 화장을 배웠더니, 이가 되레 화살이 돼 나의 능력을 폄하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뻐지고 싶지 않다. '푹푹한데 얼굴도 예쁜 여자'에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나 푹푹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예쁜 지'였다. 이젠 정말 푹푹해지겠다. 작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큰 머리를 만들기 위해, 볼륨있는 가슴을 만들기 보다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 곡선형의 몸매보다, 중심이 바로 선 기개를 펼치겠다. 연애 감정이 아닌 존경심이 먼저 드는 사람. 외모가 나를 평가하는 큰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쁜 여자보다 멋진 사람이고 싶다.

정민주(커미·17)



금주의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산사순례** - 유희준 지음, 파주: 창비, 2018. 이 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 산사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진 지금, 산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자가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산사와 관련된 내용만 엮어 재출간되었습니다. 우리 산하의 절집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책속 저자의 표현에서 찾는다면, 요즘같이 들 뜬 세상 사람들에게 산사는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무언으로 말해주는 곳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공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것의 소중함을 끝내내 지켜내려는 사람만이 쓸아낼 수 있는 쓴 소리 담긴 미학적 표현들과 흥미진진한 절집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갖게 합니다.

하늘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이화의 뜰에서, 떠나고 싶지만 차마 떠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이화인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915.1 유95나미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서울대 한국어 [개정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투판즈	2012-
2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전면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3	순조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1994
4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	Urry, Lisa A. 전상학	바이오사이언스	2017
5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에세이	백세희	흔	2018
6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에니북스	2011-

0829~0927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